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황금률로 사십시오 (마 7:7-12)

Live your life with the golden rule (Matt. 7:7-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도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그 영광과 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may be the feature of praying. It is because praying involves the moment of directly meeting God who is omniscient and omnipotent, the one who created all things in the universe, who loves us eternally and died for us, and who is glorious, wise, and holy. Prayer is the greatest privilege and blessing given to Christians.

1.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모두 명령어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좋겠다, 찾으면 참 좋을 텐데, 문을 한 번 두드려 보지 않으려?”이라고 제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뵈고, 감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8절은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다’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시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 기도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라고 합니다.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12절).

이 말씀은 소위 황금률, the Golden Rule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므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황금률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도의 응답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황금률로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Prayer is the command of God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v. 7).

‘Ask, seek, and knock the door’ are all imperatives. Jesus does not suggest, “You may ask, you’d better seek, and will you try to knock the door?” but He gives a command, “Ask, seek, and knock the door.”

The Apostle Paul gives a command, “Pray without ceasing!”, the Apostle Peter also,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 minded and self 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Prayer’ is the time that we can meet God, dare to talk and communicate with God. Through that time, we can receive God’s full power, wisdom, grace, and love. Therefore, we are fully able to overwhelm the world and live our lives giving glory to God.

2. The response of prayer is God’s promise

The words, ‘ask, seek’ are the different expressions of prayer respectively. That’s why ‘Pray and it will be answered’ in verses 7 and 8 are repeated 6 times.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Mark 11:24).

Jesus says that whatever we ask in prayer, believe that we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ours.

3. Prayer needs the patience of belief

‘Ask, seek, and knock refer to the meaning of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and keep on knocking respectively in the English Bible. It means that we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and keep on knocking, until it will be answered. Jesus says that we never give up and pray with belief sincerely, continually, and patiently.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v. 12).

This is so-called the Golden Rule. The important vocabulary here is ‘so’ which introduces the logical result of something that has just been mentioned. It means that when we pray, God answers us. Therefore, we must pray in order to live our life with the Golden Rule.

My beloved Christians!

Prayer is a command of God, and the answer of prayer is His promise. The prayer is also the way we live our life with the Golden Rule.

By enduring to the end, praying, and overwhelming the world fully,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living your victorious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VIP초청 새생명 축제”

11월 16일(금) 오전 11시 / 17일(토) 오후 5시 / 18일(주일) - 1, 2, 3부 예배 / 찬양예배



우리 주위의 전도 대상자인 VIP 대상을 우리교회로 초청하는 『VIP초청 새생명 축제』가 11월 16일(금)부터 18일(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교회는 5,000명의 VIP와 1,000명의 방문자와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 아직도 VIP선정을 못한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교회에 비치된 작성카드에 항목을 채워서 교회로 제출하면 교회가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 전국장로회연합회 제41회기 정기총회 -

오정수 장로, 전장연 회장 및 한국장로신문사 이사장 취임감사예배

총회 : 11월15일(목), 오전11시30분 - 오후4시 본당
취임감사예배 : 11월15일(목), 오후5시 본당

전국장로회연합회 제41회기 총회 및 우리교회 오정수 장로의 전장연 회장 및 한국장로신문사 이사장 취임감사예배가 15일(목)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지난해 선거준비 기간 동안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전장연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는 오정수 장로는 1년 동안 수석부회장으로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오는 15일(목) 오후 5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및 한국장로신문사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날 우리교회 성도들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취

임감사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기 바란다.(총회 관계로 주자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

또한 오전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되는 전국장로회연합회 제41회기 총회는 차기 전장연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전국의 우리교단 교회 총대 장로 900여명이 참석하는 성대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오정수 장로는 제50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3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서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3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

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에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2013년도 신입서리집사 교육·면접

사진 촬영 16일(금), 17일(토) 오후 5시 ~ 7시, 18일(주) 오전 10시 ~ 오후 2시 / 704호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교 육	(1) 11/16(금) 오후 7시 (2) 11/17(토) 오전 6시 15분 (3) 11/17(토) 오후 7시	501호	각 시간 중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교육과 면접 각 1회 참석.
면 접	(1) 11/16(금) 오후 7시 45분 (2) 11/17(토) 오전 7시 (3) 11/17(토) 오후 7시 45분	면접-603,606호 대기-601호	

신입서리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들은 교육과 면접 일정을 참고하여 각각 한 번의 교육과 면접을 받으면 된다. 또한 서리집사 사진 촬영 일정이 16일(금) 오후 5시 ~ 7시, 17일(토) 오후 5시 ~ 7시, 18일(주) 오전 10시 ~ 오후 2시 704호(멀티미디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난 주 우리교회는...



지난 주일 11월4일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 '경로대학 어르신 솜씨 자랑·3대찬양대회' -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난 금요일 피택 장로 면접과 피택 집사·권사 당회고시 및 면접이 있었다.

만민에게 전도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윤봉준 장로 (9교구)

지난해 10월 어느날 나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친구 유재희를 45년만에 만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66년 포천에 있는 모 부대에서 유재희를 만났는데 당시 부대 안에서 신앙인은 그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이런저런 얘기 끝에 교회 한번 나가지 않겠느냐는 그의 말에 나는 두 말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에 그 친구의 인품과 장병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좋은 친구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무척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 친구에게 수없이 질문을 하며 신앙생활 하던 중에 약 1년이 지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후 40년 동안 그 친구의 은혜를 잊지 못해 늘 감사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전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연락이 된 친구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나는 친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



노방전도 중인 윤봉준 장로

다. 그 친구는 그동안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가족과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온 가족 15명이 다시금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읽고 있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경우처럼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전에 전도한 분들도 지금 신앙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해 VIP카드와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영적 잠에 깊이 빠진 저들을 깨워 흔들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므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전도에 전 가족이 믿게 되다

나의 하나님

좋은 성품과 성경 암송

이정자 권사 (6교구)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사랑하는 손자·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좋은 성품과 인성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좋은 성품으로 키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주 양육자가 적어도 3년 동안에는 바뀌지 말아야 아이의 정서가 불안정하지 않고 바르게 안정되게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공부잘하고 환경이 좋고 어려운 것 없이 키운다고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바른 성품이 제일입니다. 염려하고 있던 중 교회에서 영여성품스쿨을 한다기에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 스쿨은 이번에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 하루 아침에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로서 나의 자손들이 감사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어른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성품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겸해서 성경을 읽어 주며 이야기 해주고 암송을 하게 합니다. 암송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새록 새록 기억나서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들이 그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 예원아!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또한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할머니는 바라고 기도한다. 할머니는 너희들을 위해 귀한 사람 되기를, 좋은 성품으로 자라기를, 암송한 성경 말씀들 잘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잘 자라기를 항상 기도한다! 그동안 성경 말씀 암송하느라 수고했다.

사랑한다.

만민에게 전도

노방전도의 기쁨

이다현 (고등부 3)

지난 주일 저희 고등부는 공과공부 시간에 노방을 나갔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은 부담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준 예쁜 포스트잇 선물과 순례자를 들고 각 반마다 정해진 구역으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고등부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건네며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선물만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무안했지만, 웃으면서 답해주시며, 저희가 나눠드린 순례자 글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기에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다가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만났는데 서로 응원해주기도 하였고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를 알리고 전도를 한다는 게 참으로 뿌듯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학입시라는 핑계로 미루었던,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게을리 했던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30분 동안 짧은 시간에 전도했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VIP초청 새생명축제'에 초대 할 VIP들에게 선물로 제공 할 DVD를 제작하여 저렴한 가격에 성도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수록곡들은 우리교회가 저작권을 가지며 이미 지난 주 3600장이 판매되었으며 오늘까지 판매 한다. 이 작은 선물을 통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삼기를 바란다.

사랑부제 6회 '천사들의음악회' 초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오늘 오후 3시, 웨스트민스터 홀-

황성일 성도(사랑부교사)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사랑부에 있었습니다. 사랑부의 상징이었던 휠체어가 사라지니 덩달아 교사들이 많이 그만두고, 은혜롭게 여름성경학교가 끝나자마자 이승우부장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천사들의 음악회가 열릴 수 있겠나?'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사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천사들의 음악회를 준비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찬양으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곡을 매주 학생과 교사들이 열심히 울동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찬양처럼 사랑부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사들의 부족한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도 했지만,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정말로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한명의 학생이 독창을 연습하는 중간에 "힘을 내세요"라는 찬양을 목소리 터져라 부르는데,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학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음악적으로 보잘 것 없었지만 몰라도 그들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연습을 할 때도 감동이 느껴지는데, 천사들의 음악회에서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부 학생들을 통해 흘러갈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부 학생들을 통해 흘러넘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제6회 천사들의 음악회에 초청합니다.



천사들의 음악회 연습 중인 사랑부 학생들

2012년 하반기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 프로그램 은혜중에 종강

- 오늘 찬양예배 시 수료식 -

지난 9월 4일(화) 개강하였던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지난 주 중 각 과목별 일정에 따라 은혜안에 종강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로마서(34) : 강은경 강현숙 곽태수 권애란 김옥순 김은정5 남경희 2 문홍식 박미경8 박성진 배은희 송민정1 송행희 오혜경 우승희 이경구 이경숙8 이부자 이영자8 이은희7 이현정1 장미자 장영순 전미경 전정희 정기자 정영애 정임숙 최금숙 최종희 최현순 한혜주 황선옥1 황영숙
- 마가복음(8) : 강석조, 김진희, 김찬진, 박주현3, 윤정일, 이규희, 이상호2, 정규호1
- 느헤미야(21) : 권소희 권진순 김미성1 김영애 김옥순 김정숙3 김정제 김종철1 김진희 김찬진 김혜중 손용문 송행희 유선희 유성택 이계홍 이상자1 정규호1 정호진2 최규초 최금봉
- 성경통독반(47) : 강현숙 권은주 김경희10 김경희14 김고은 김성은5 김숙영2 김애자 김영숙3 김인숙2 김정애 문정원 박계진 박동희 박명애 박복순1 박현영 박희실 서해숙 손경화 양옥희 우승희 윤현미1 이명신 이미란2 이양숙 이옥희2 이윤진1 이은미2 이은자 이인보 이인숙4 이정연1 이정희7 이혜순 이현주12 이홍숙 이효정3 인계선 전미애1 정부순 정영옥 조정옥 전선자 최민자 한은경 현승희
- 교사양성반(17) : 고민정 권윤환 김택정 박인자1 박한준 윤정일이

성희4 이승언 이영재 이은희7 이준호3 정두영 정에스더 정윤희 하정연 황병석 황정애

- 교구일꾼양성반(5) : 김태욱 남경희2 유혜영1 이성희4 이홍숙
- 결혼예비학교(10) : 김관호 이정규1 김은기 조민희 소원섭 박진선 최영주 최윤진 김우현 김아라
- 서울음악교실(24) : 고현승 송경숙13 김민서3 김상철 김우정3 김우정4 김태희4 김현경 박성미1 박현지 배길수 송양원 송종순 우승희 이신애3 이종실 이태정 임대희 임병석 장영소 정종화 허다엘 홍진경 황인주
- 표포마 가배학교(11) : 공정환 구은총 김중혁 나진우 노진철 박동하 손예은1 엄태은 오주연 이상재 이승현
- 살림경로대학(42) : 공진문 김길자 김복녀 김신애 김자경1 박경희 박두영 서귀영 소정부 송옥혜 신종건 심영숙 안창휘 양옥자 우선자 유복달 유순임 이민화 이부자 이순애 이재순 이장기 인천희 임귀순 장연순 전행자 정금봉 정병무 정애신 정연택 최금자1 최무순 최봉애 최숙희 최영순 최정숙 최정옥 최창화 최향봉 한경석 홍광숙 황성연
- 주부대학(28) : 김경진1 김선혜2 김수원 김인주 김현경 민미경 박미경5 박정순1 송행희 신혜경 오혜경 윤소영2 이미연1 이영란 이은옥 이인숙2 이혜숙 임어은 전숙향 전영미 정영선 조정옥 최경애2 최준숙 최향숙 한승희4 허옥자 홍경아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추수감사절 특별찬양으로 중등부(지휘: 이민주) 나같은 죄인 살리신(American Melody), 고등부(지휘: 박경주) 아름다운 온 땅과(J. Rutter), 대학부 날 구원하신 주 감사(J. A. Hultman) 맛없는 소금, 청년1,2부 복된 날(J. W. Pomme) 사랑으로 찬양드립니다.

김수진 집사· 위성남 권사 사회봉사상 수상 11월 6일 강남노회에서

우리교회 김수진 집사와 위성남 권사 두 분이 지난 11월6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50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이 사는 대치주공아파트를 방문하여 1년 3개월 동안 집안청소, 밑반찬, 김치, 생필품, 목욕, 병원심방 등의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69명이 결신하여 우리교회에 등록하였다. 이들과 같은 수많은 봉사의 손길이 우리교회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일(주) 덕수교회 원로목사추대 및 위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축사를 한다. 15일(목)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16일(금) 수원중앙침례교회 실업인위원회 명사 초청 세미나특강을 한다.

■ 주간식당봉사: 이삭선교회(11.11) 도라기전도회(11.18)

■ 금주의 식사: 이을동 집사 김영정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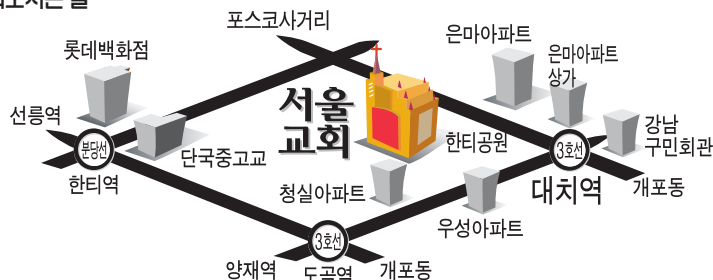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드디어 이번주 11월 16-18일로 다가온 VIP초대 새생명 축제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기회가 되도록
2. 새생명 축제에 1,000명의 VIP가 참석하여 300명 이상의 결신자를 맺는 비전을 이루어 주께는 영광을 돌리고 온 교회는 기쁨으로 찬만하도록
3. 다음세대의 부흥을 담을 새부대를 잘 준비하여 우리교회 시대적이며 지역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